

독님께 프랑스에서 온 배 한 척이 호박섬에 정박해 있다고 알려드리라며 사람들이 절 보냈어요. 지금 바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구조요청을 한답시고 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그사내는 이렇게 말한 뒤, 잠시도 더 머무르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네.

그러자 내가 폴에게 말했어.

“비르지니에게 가기 전에 금모래 지구부터 가보자. 여기서 3리의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

그래서 우리는 섬의 북쪽으로 걷기 시작했다네. 숨 막히게 더운 날이었지. 달이 떠있는데, 그 달을 커다랗게 둘러싼 검은 달무리가 세 겹이나 보였다네. 하늘은 소름끼치도록 새까맣어. 빈개가 치면서 자꾸만 빈득이는 섬광에, 낮게 깔려드는 뻑뻑한 먹구름이 길게 무리지어 줄을 이루더니 섬 한가운데로 몰려들어 켜켜이 쌓여가는 모습이 보였네. 육지에서는 바람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구름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바다에서 밀려오고 있었어. 가는 도중에 우리는 요란하게 울리는 천둥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자, 계속해서 발사된 대포 소리가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의 형상에 멀리서 쏘아대는 대포소리가 더해져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 그 소리가 난파로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배의 조난 신호가 아닐까 걱정이 될 수밖에